

## J국 가정교회 이야기

이다워

2002년 J국 S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낮설은 형제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화에서 그 형제는 자기는 아무개 지방에서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형제인데 이 선생님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 실수 있느냐는 정중한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N 지방에 있는 아무개 형제가 이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연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N 지방에서 추방되어 S 지역으로 이사를 온후 J국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믿고 S 지역에서 함께 팀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차로 11시간) 지역의 가정교회라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그곳 가정 교회의 형편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두 선교사님 이렇게 셋이서 토요일 저녁 기차를 타서 밤새 달려 다음날(주일)아침 7시경에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인 기차역에 내리니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가정교회 형제가 기차역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다시 그 형제와 함께 버스를 약 한 시간 정도 타고 가서 어느 시골의 허름한 창고 비슷한 건물로 저희들을 데리고 들어 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허름한 창고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약 3-4백명정도 되는 사람들이 창고에 가득했고 대부분 조그만 통나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저희들에게 이제 곧 아침 예배가 시작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 교회라고 해서 일반적인 J국의 가정 교회를 생각하여 한 3-40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이렇게 많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이라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간 선교사들 모두가 약간의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정확히 8시10분경에 시작이 되고 앞에 찬송을 인도하는 자매를 따라 약 1시간 동안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들을 합니다. 찬양이 끝난 후 그 교회 한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지도자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간 중간에 여기 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힘찬 응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은 약 1시간 반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마침 우리가 방문한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라 우리들은 그곳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같이 밀가루 떡을 썰 후에 함께 잔을 나누는 의식을 하는데 우리들이 평소 성찬식에서 자주 보던 조그만 컵들은 안 보이고 커다란 양동이에 빨간 색소를 풀었는지 새빨간 물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빨간 색소물이 가득한 양동이를 형제 둘이서 들고 와서 한 형제는 그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손가락에 빨간 물을 담아 성도 한사람 한 사람 입에 넣어주며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간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저희들의 눈은 오직 손가락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하나인데 그 손가락은 그곳에 참석한 3백여명의 입 속에 들어갔다 나온 조금은 특별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간 선교사님들 모두가 마음 속으로 기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손가락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그새 손가락은 점점 저희들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함 께간 선교사님들 모두가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의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손가락이 저희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가락을 물려주고 있었던 형제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요? 어쨌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과 그 가정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중국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어린아이들 같이 낮추며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